

만남

2023년 10월
통권 224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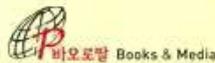
10월 ·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목주기도를 충실히 바치십시오.

많은 사람이 목주기도를 바치며 성화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사랑하며 기도하며」 중에서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목주 기도 성월 기도문	-----	3
바티칸 소식	-----	4
신앙 나눔	-----	8
현대 영성	-----	9
소공동체 모임 자료	-----	11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가는 길	-----	14
축일을 축하합니다	-----	16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7
공동체 소식	-----	18
활동단체 모임 안내	-----	19
월중 행사표	-----	20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1
미사안내	-----	22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시노드를 위하여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목주 기도 성월 기도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일에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177년 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 순교하신 날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전의 외부 벽감에 설치된 그분의 성상을 축성하는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위대한 성인이 보여주신 삶과 신앙의 증언을 두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름다운 증언을 보여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증언을 두고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상의 설치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라자로 추기경님 -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 주교회의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 그리고 한국의 형제 주교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로 오신 많은 분들과 신부님들, 봉헌 생활을 하시는 남녀 수도자들, 평신도 형제 자매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인사드립니다! 성상을 조각해주신 한진섭 요셉님과 그의 아내 고종희 마리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저는 제 6회 아시아 청년의 날에 참가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쁨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안드레아 성인께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솔피성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침묵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젊은이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성인의 치열했던 삶을 생각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김 안드레아 성인이 소중한 씨앗이 된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한국 교회, 즉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성소를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 여러분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생기를 얻어,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젊은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교라는 성인의 예언을 통해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품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남김없이 사랑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열려 있지 않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 2023.9.16. 성 베드로 대성전 외벽에 설치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김 안드레아 성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전파에 대단한 열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지니셨던 그분은 여러 위험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또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데에 헌신하셨습니다. 성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도 순교하셨고, 성인의 어머니는 결인처럼 사셔야 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 안드레아 신부님을 바라보며, 사도적 열정을 키우라는 내면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그분을 바라보며, 복음의 씨앗을 기쁘게 퍼트리도록 - 평화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바쳐진 삶을 통하여 - 자신에게서 탈피하는 교회의 표지가 되라는 내면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제 성소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내쫓아 주십시오.” (역자 주: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하는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신부님들을 선교에 파견해 주십시오. 사람들보다 신부님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신부님들이 한국 밖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들을 아르헨티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의 선교사들은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파견하십시오. 꼭 필요한 분들은 남아 계시고, 그 외의 다른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도직으로부터 일어나 순교자들의 피로 기름지게 된 한국 교회는 그 뿌리에서 신앙의 증인들의 한없는 복음적 열성과 평신도 교우들의 역할과 소명을 소중히 대하는 인식을 흡수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목적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희망을 선사하고자 하는 의향은 마음에 열정을 샘솟게 하고,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편가르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복음은 온유함과 봉사의 정신 안에서, 자기의 문화와 역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들게 합니다. 즉, 복음은 절대로 적대적인 대립을 초래하지 않고, 언제나 친교를 이룹니다. 친교를 이루는 것. 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성소를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김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실 때, 그분은 아편전쟁의 참상을 목격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분쟁의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을 만나고 또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자 하셨던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시며 많은 이들을 위한 평화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와 온 세상을 위한 예언입니다.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또 우리도 여정의 길을 걷는 이들의 동반자,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미래가 무기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건설되지 않고, 친밀한 온유함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직한 증거입니다. 저도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꿈을 우리 함께 김 안드레아 성인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을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 전파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참으로 젊은이들을 한국 천주교회에 맡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신앙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훌륭한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효율성과 소비주의라는 가짜 신화의 유혹을 당하고 있으며, 쾌락주의의 환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마음이 진실로 찾는 것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넓은 지평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내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진리와 형제애의 기쁨 가득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십시오.



▲ 2023.9.16. 교황 알현.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는 프란치스코 교황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김 안드레아 신부님과 한국의 성인 순교자들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길 기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전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어린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십자가에 피어나는 장미꽃 (최영숙 데레사)

10월 목주성월을 맞아 십자가아래 촛불을 밝혀놓고
신비로운 목주 알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굴러가면서
교회와 성직자와 가족과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바라며 기도하네!

자기 몸을 아낌없이 태워 빛을 환히 밝혀주는 촛불처럼
원죄 없이 성령으로 아들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과
저희 죄 때문에 몸소 십자가에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과
인생에서 소중한 만남으로 영원생명주시니 구세주시네!

어제의 일상이 기쁨의 하루였더라도 후회로만 남아지고
오늘의 일상이 고통의 시간이었다도 축복으로 감사하며
내일의 일상이 선악의 공간이었다도 희망으로 기대하고
여명의 일상이 죽음의 골짜기였다도 십자가만 따르겠네!

십자가에 피어나는 장미꽃 송이송이 마다 우리들소원이
목주에 매달려서 성모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니
세상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와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구원을 청하네!

거룩하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장미꽃송이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니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로 목주기도를 바치게 되며
십자가에 피는 장미꽃송이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나네!

오늘도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목주기도로 전구하시는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께 우리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니
모든 근심과 슬픔도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이 솟아나서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천상의 어머니께 장미화관 올리네!



✦ 성모님은 맑고 깨끗한 창문과 같습니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우리는 성모님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호칭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원죄 없으신 탄생’ ‘평생 동정’ ‘미혼모’ ‘과부’ ‘성모 승천’ ‘그리스도의 어머니’ ‘여왕’ ‘성모 발현과 기적’ ‘전구자’ ‘바다의 별’ ‘평화의 모후’ ‘천상의 모후’ 등등. 토마스 머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모님에 대한 이미지는 ‘주님의 종’이었다. 왜 그가 ‘주님의 종’으로 성모님을 강조한 것일까?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묘사한 성모님을 통해 머튼은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

초기 머튼에게 성모님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였다. 그래서 성모님께 전구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후기 머튼에게 성모님은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삶을 사신 분, 아들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신 분이셨다. 성모님은 머튼에게 있어 관상의 모델이 되었다. 성모님의 단순한 관상적 삶에 대해 머튼은 『논쟁점』(Disputed Questions)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모님은 인간과 모든 그 일상 안에서, 어떤 드라마틱하거나 굉장한 행복감 없이 그녀의 삶의 방식 안에서 단순하고 겸손하게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다.”

관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머튼은 성모님의 생애와 예수님을 향한 태도 안에서 하느님의 도구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인 성모님의 완벽한 겸손과 순종에 매료되었으며, 드러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의 삶을 사신 성모님과 같이 자신도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관상의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럼 머튼이 말하는 관상의 모델로서의 성모님의 순종과 자기 비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성모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에 ‘왜’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응답하셨다. 이 성모님의 ‘예’라는 순종의 응답을 통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모님은 ‘말씀’이신 아드님과 태중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긴 기다림 속에서 함께하셨다. 관상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관상은 성모님께서서 아드님의 탄생을 위해 기다리셨고, 아드님의 공생활의 시작을 기다리셨고, 아드님의 부활을 기다리셨듯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재탄생하시기 위한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맞들이며, 고요한 미풍 가운데 들려오는 침묵의 말씀을 들으며 기다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되어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성모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아드님과 일치의 삶을 사셨기에 머튼은 성모님을 유리창에 비유하며 그분의 자기-비움과 깨끗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의 수도생활 초기에 벌써 일어났다. 그는 수도원 입회 후 6년째 되던 해 일기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1947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에 첫 저녁 기도를 바친 다음부터 (당신에 대한 창문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머튼은 『새 명상의 씨』에서 “이기심이 전혀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성모님은 햇빛을 들여보내는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맑은 유리창과 같이 깨끗하십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성모님은 너무도 맑고 투명한 창문이시기에 성모님을 바라보지만 성모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머튼은 성모님을 창문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노래했다.

저의 뜻은 창문과 같기에, / 그리고 태초의 탄생이 교만이 아님을 알기에,
 저의 삶은 빛에 의해 창문과도 같이 사라짐입니다.
 저는 신랑의 태양의 강렬한 빛 안에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의 사랑은 창문과 같기에, / 그리고 태초의 먼지와 같은 탄생이 수치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저의 죽음의 새벽까지 온 밤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저의 성령과 혼인하던 날, 그리고 거룩한 변모에 의해 빛 안으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머튼은 1962년 강론에서 “순수함과 겸손의 완전함에 의해 성모 마리아보다 하느님의 빛을 더 완벽하게 소유한 이는 없었다. 그녀는 빛이 비취지면 온전히 사라지는 듯 보이는 깨끗한 유리창처럼 진리와 충만이 하나 되었다”라고 성모님과 하느님의 일치를 유리창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깨끗하고 맑은 유리창이신 성모님에 관한 머튼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깨끗한가 반성하게 된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

연중 제 28 주일
혼인 잔치의 비유
(마태 22,1-14)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1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 11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 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 13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4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 주님께서 원하시는 혼인 예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신앙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그분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잔치의 예복은 ‘기쁨으로 사는 인생’을 뜻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런 기쁨 없이 억지로 가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삶이 멍에로 느껴진다면 ‘기쁨의 예복’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겁기만 하다면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쁨을 갖고 사는 인생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는 것이 복음의 교훈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4장 “평화를 주옵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 가는 길 (허윤선 아가다 /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2023년 8월 27일, Porto 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산티아고 포르투갈 순례길을 걷기 시작했다. 2022 년 걸었던 산티아고 프랑스 순례길은 나 자신과 삶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 헤매는 여정이었다면, 올해는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길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했다.

총 258,3km의 순례길을 15일 동안 걸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서 내 두 발로 걸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동하며, 영적으로 반성하고 사색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순례길이 주는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해변 길, 모래길, 새벽길, 직선 길, 굽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숲길, 물길, 아스팔트길, 지름길, 막다른 길, 우회 길, 셋길 그리고 갈림길. Pontevedra 를 지난 후 나는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었고 산티아고를 가는 두 가지 노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길은 평평하고 걷기 쉽고

표시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길은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길이다. 다른 경로는 우회 길로 23km 더 길고 산을 넘어가야 하며 부분적으로는 배를 타고 수로를 건너게 된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숙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사람이 적고 조용한 우회 길을 선택했고, 산 정상 즈음에 위치한 유일한 Herberge 에서 하루 묵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Kloster Armenteira 를 찾아갔고 순례자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덟 분의 수녀님들께서 주님과 성모 마리아님을 향해 앉아서 순례자들을 위해 성가를 불러주셨고, 성경 말씀을 낭독해 주셨으며 기도를 해주셨다. 모든 찬송과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 사이에는 항상 1-2 분 정도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STILLE! 수녀님들의 찬양하는 목소리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침묵하는 모습에서 나는 하느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때 나의 자만함과 경솔함이 드러나 보였다. 나는 이성적 판단과 경험적 논리에 치우쳐 인간의 능력을 더 신뢰했던 적이 많았다. 셋길로 빠져 헤매다가 다시 주님의 길을 찾은 적도 많았고, 지름길을 가려다 막다른 길에 부딪혀 다시 주님의 길로 되돌아온 일도 많았다..... Kloster Armenteira 에서,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낮추고 고개를 숙였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마쳤으며, 많은 감사하고 좋은 만남과 동행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Kloster Armenteira의 미사를 마음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흔히 „순례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준다“고 말한다. 이번 산티아고를 향한 순례길은 나에게 겸손함과 진솔함, 침묵과 명상을 선물해 주었다. 삶의 길 위에 좌절과 용기, 오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도 함께 주셨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조금 한 발짝 가까워졌다!

Mosteiro de  Armenteira

Pilgersegen

*Möge das Licht und die Liebe Gottes Dich segnen und Deine Schritte leiten.

*Mögen die Wege sich Dir erschliessen und Dich willkommen heissen.

*Mögest Du Dein Herz für die Stille öffnen und Dich voller Dankbarkeit an die guten Dinge erinnern, die Du erlebt hast.

*Möge Gott Dich auf Händen bis in die Arme des Heiligen Jakobus tragen.

*Mögest Du nach hause zurückkehren, erfüllt von Licht und Freude.

Durch Jesus Christus unseren Herrn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레사	최영숙	18일	루카	현안태 이동빈
4일	프란치스코	김진호 김재영	22일	살로메	정명옥
	프란츠	김기현			
	프란치스카	김인순 이정은	23일	이냐시오	윤용기
	프랑크	김기년			
7일	로사리아	조현영	28일	시몬	김동수 최화영 최순남 리간재
16일	마르가리타	강순행 이가나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소화데레사	김영자(B)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레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카스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윤주해(B) 안수경(O)			
	프랑크	정유진(H)	30일	루실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

	입당	봉헌	성체	파견
1일	416	211	163	417
8일	439	212	167	446
15일	51	216	175	6(2-3절)
22일	63	511	334	450
29일	39	512	169	82

❖ 10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	커피봉사
1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매자(베로니카)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박종래 (바오로)	4구역
8일	요셉마리아회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박종래 (바오로)	요셉마리아회
15일	비르지타회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박성아 (베로니카)	1구역
22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박성아 (베로니카)	2구역
29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최승진 (바오로)	3구역

♥ 9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수잔나, 정마리아, 한말조, 정명옥, 심동근, 강순행, 박춘실

❁ 공동체 계좌 입금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강신행,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이호준, 손수희

❁ 교구 계좌 입금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옥,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최화영,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김영복, 남궁춘배, 이영원, 김진호, 허채열, 최성자, 배성우,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육종인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20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8.290,83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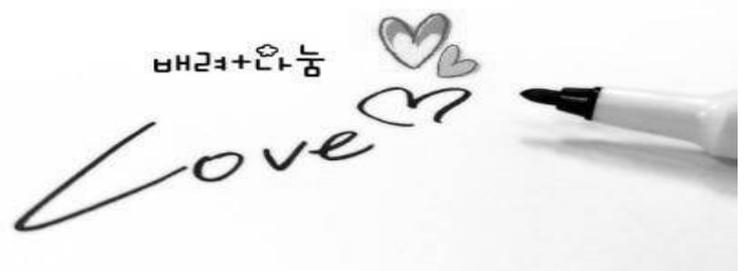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 목주 기도 성월을 맞아 매주 주일미사 전 2시 15분부터 목주기도 5단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2. 10월 9일(월)~12일(목) 독일 한인사목자회의가 뮌헨에서 있습니다. 10월 10일(화), 11일(수) 미사는 없습니다.
3. 10월 10일(화) 꾸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4. 10월 22일 주일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아울러 Weltmissionssonntag이기도 합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10월 25일(수) 11시 만남성당에서는 연령회 월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6. 10월 28일(토)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친목회가 있습니다.
7. 10월 29일 주일미사 후 사목회가 있습니다.
8. 10월 29일 일요일 새벽 3시에 Sommerzeit가 해제됩니다.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0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10월 7일 브레멘, 10월 14일 오스나브뤼크, 10월 21일 하노버



사 목 협 의 회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재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셋째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10 월 행 사 표 (목주 기도 성월/전교의 달)

2023년도

일	요일	전례일	기관·단체 행사	비고
1	일	연중 제26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김상진 신부
2	월	수호천사 기념일		임시공휴일
3	화			개천절 휴무
4	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박진용 신부
5	목			
6	금			故김해동요한 크리스도모 신부 48주기 금욕
7	토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브레멘	
8	일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비르지타회 월례회	
9	월		독일 한인 사목자회의 (~12일)	허성학 신부 한글날 휴무
10	화		꾸리아	
11	수			
12	목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오 치명일(1868년)		
13	금			이제민 신부 금욕
14	토		오스나브뤼크	이은진 박종선 신부
15	일	연중 제28주일	요셉마리아회 월례회 청년회 월례회	
16	월			
17	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18	수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이병우 신부
19	목			故이강해(스테파노) 신부 11주기 故김영식(알로이시오) 신부 4주기
20	금			금욕
21	토		하노버	
22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Weltmissionssonntag	
23	월			
24	화			
25	수		연령회 월례회	
26	목			
27	금			금욕
28	토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연차 총친목회	비고란 참조
29	일	연중 제30주일	사목회 Ende der Sommerzeit	
30	월			
31	화			김인식 신부

비고 : ● 10월 28일: 최훈, 오승수, 김호준, 이시문, 서시문, 김정훈(작)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